

# 안고 업고 물웅덩이 건너... "5분만에 친구 됐어요"

"말썽꾸러기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23일 이제 막 물들기 시작한 가을 단풍이 반겨주는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자락에 선우학교와 각화중학교 학생 300여명이 '특별한 가을소풍'을 나섰다.

(사)광주학교(교장 송갑석)가 주최하고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후원한 '2014 장애·비장애 청소년 우리 지역 명산 체험'이 오늘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무등산 역사길 탐방'을 위해 모인 것이다.

미리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각화중학교 학생들의 손에는 편지봉투가 들려 있었다. 조준규(15·각화중 2년)군은 "오늘 처음 만나게 될 선우학교 학생한테 전해주려고 어젯밤 정성스레 쓴 편지"라며 자랑했다.

곧 선우학교 학생들이 도착하자 짝꿍을 기다리던 각화중 학생들은 짝꿍의 손을

## (사)광주학교 주최 '장애·비장애 청소년 지역 명산 체험' 가보니

### 광주 선우학교·각화중 학생 300여명 무등산 역사길 탐방 '특별한 가을소풍' 풍암제 배경 셀카봉 찰카... 추억 선물

잡고 오늘의 목적이 '풍암정'을 향해 정다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산행을 시작한 지 불과 5분, 산길 입구부터 50m구간에 전날 내린 빗물이 고여 만들어진 크고 작은 물웅덩이가 아이들의 발걸음을 방해했다.

각화중 2학년 조민영(여·15)양은 자신의 짝인 박다원(10·선우학교 초등 1년)군을 망설임 없이 품에 안고 웅덩이를 피해 산길을 올랐다. 힘들 때도 하지만 조양은 "다원아, 추우면 누나한테 꼭 말해줘"라며 박군을 챙겼다.

조양은 "처음 다원이를 볼 때부터 너무 귀여워서 꼭 짝꿍이 되고 싶었다"며 "동생이 없어 외로웠는데 누나 말도 잘 듣는 다원이를 만나게 돼 너무 좋다. 마치 친동생을 얻은 것 같다"고 환하게 웃어보였다.

무등산 옛길 3구간을 따라 올라가던 아이들이 풍암제 앞으로 모여들었다. 눈 앞의 펼쳐진 풍암제 수면 위로 단풍나무가 반사되고 있었다. 각화중학교 학생들은 가방에서 하나 둘 '셀카봉'을 꺼내들었다. 김규리(여·15·각화중 2년)양은 풍암제를 등지고 선우학교 1학년 이주환(8)군과 사

친을 찍는데 여념이 없었다. 김양은 "나와 다른 친구를 만나는 것이 사실 부담됐었다"며 "스스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아 쥐는 주환이 덕분에 금세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동요 '산토끼'를 흥얼거리며 교사와 안전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2시간 가량 이어진 무등산 역사길 탐방을 안전하게 마쳤다. 목적지에 도착한 학생들은 서로의 주머니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며 짝꿍 만남을 아쉬워 했다. 행사는 끝났지만 아이들은 따뜻한 만남과 공감과 선물을 선물했다. '2014 장애·비장애 청소년 우리 지역 명산 체험'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며 공감과 배려를 배우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사)광주학교 송갑석(48)교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단 하루지만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역사길에서 '2014장애·비장애 청소년 우리지역 명산체험' 행사가 열린 가운데 각화중학교와 선우학교 학생들이 짝을 이뤄 산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서울대 합격 광주·전남학생 크게 줄어

### 광주 0.61%, 전남 0.57% 감소

서울대에 합격하는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인재발굴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도 수도권 합격생은 증가한 반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非)수도권 합격자수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해 서울대에 합격한 광주지역 학생은 104명, 전남은 64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126명, 8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합격자 지역별 비율에서도 광주는 지난해 3.79%에서 올해 3.18%로, 전남은 2.53%에서 1.96%로 감소했다.

광주는 광역시중 부산(4.86%) 대구(4.4%), 인천(3.38%) 다음이었고, 전남은 충북(1.74%) 제주(0.64%)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도 낮아져 광주는 지난해 799명이 지원해 126명 합격, 합격률이 15.77%였는데 올해는 911명이 지원, 이중 104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12.55%로 떨어졌다. 전남지역 합격률도 15.73%에서 12.85%로 낮아졌다.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제도 광주는 지난해 104명에서 올해 91명으로 줄었으며 지역별 비율도 3.92%에서 3.48%로 감소했다. 전남도 72명 2.71%에서 58명 2.22%로 낮아졌다.

지역균형선발 전형 합격자 수와 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699명 중 광주지역 학생은 34명(4.9%), 전남은 19명(2.7%)이다. 광주지역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 합격생은 2012년 36명(5.4%)에서 지난해 37명(5.2%), 올해 34명(4.9%)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남지역도 2012년 38명(5.7%)에서 2013년 32명(4.5%), 올해는 19명(2.7%)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지역균형선발 신입생을 전국 시도 출신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서울이 17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119명) ▲인천(53명) ▲경남(49명) ▲대구(39명) ▲경북(35명) 다음으로 광주 순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6    달출몰 06:49  
해질름 17:47    달지름 18:04

### 가을소풍 떠나기 좋은 주말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9/22	보성	맑음	7/22
목포	맑음	11/21	순천	맑음	9/22
여수	맑음	14/21	영광	맑음	9/22
나주	맑음	7/23	진도	맑음	8/21
완도	맑음	10/22	전주	맑음	9/22
구례	맑음	6/22	군산	맑음	8/21
강진	맑음	8/22	남원	맑음	6/22
해남	맑음	7/22	흑산도	맑음	14/20
장성	맑음	7/2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부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해	남~남서	0.5	남~남서	0.5
서부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해	북~북동	0.5	북~북동	0.5
서부	북~북동	0.5	북~북동	0.5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22	02:04
	19:48	14:34
여수	09:14	02:43
	21:19	15:14

### ◇주간 날씨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31(금)
☀	☀	☀	☀	☀	☁	☁
9/23	10/23	10/22	10/22	9/22	12/22	14/20



### ◇생활지수

식중독	43
운동	60
빨래	70

## '가로수 훼손범' 찾습니다

지원1동 유선각 느티나무 도끼로 찍고 제초제 뿌려 동구청 등 수배 전단 배포

나무가 테러를 당했다.

최근 광주시 동구 지원1동 주민센터 정자인 '유선각' 기둥에 '가로수 훼손범을 찾습니다'는 내용의 전단이 붙었다. A4 크기 전단에는 느티나무에 제초제를 뿌려놓은 '습격'을 한 범인을 잡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원동의 명물인 느티나무 2그루(수령 20년·높이 5m·둘레 150cm)는 지난 10일 오전 훼손된 채 주민에게 발견, 지원파출소에 신고됐다. 지원 1동 주민센터는 경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뒤 '범인 수배' 전단을 제작, 배포했다.

동구청도 지난 21일 동부경찰에 국가 소유 느티나무 2그루를 훼손한 범인을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느티나무 2그루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뜻함이 각별해 반드시 검거,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도 내보냈다.

지원동 느티나무는 동네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정자 옆에 심어져 있었다. 여름이면 쉼 수 있는 그늘을,



(지원1동 주민센터 제공)

봄·가을이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얘기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지원1동 통장 박현민(62)씨는 "동네 노인들이 여름이면 이야기꽃을 피우는 곳에 심어진 나무인데 잎이 새가 땅게 말라 죽어가고 있다"면서 "반드시 범인을 잡아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누군가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고 제초제를 주입한 사실을 확인, 물로 씻어내는 등 노력했지만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고 인근 CCTV 및 일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에너지 절감의 혁명!!

동유대비 68% 절감  
전기 54% 절감  
도시가스 42% 절감

고정비용을 줄여라!!

시상 원예, 병원, 모텔, 펜션, 어린이집, 목욕탕, 요양원 등

지역 특관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 히트펌프보일러 1644-8983

10월 24일 OPEN

순천 최초 수억형 미니아파트 리기안

적게 투자하고 크게 누리라!

1억투자시 월160만원 수익!

생활편의 · 교통 · 문화 · 교육의 중심에 위치

지상 2층의 하늘정원과 원 폭(7.5)의 옥상하늘정원 · 무인택배시스템  
구. 순천민정원(비밀화장) 1km.4에 위치 (순천민정원 조망권) · 히트나스센터

1599-1129

방문고객 시은품증정

MH\_ 홈플러스 풍덕점 주차장 뒷편